세상에 내쳐진 '어른아이'를 다독이다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지음

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는 평가에도, 나이가 쉰에 가깝다는 저자가 '갈팡질팡 자기 앞가림에 바쁜, 여전히 망설이는 어른 아이'라고 소개했으니 중·장년 독자들도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여전히 많고 아들은 둘 밖에 없지만, "어린이 셋을 키우느라 힘들다"는 말을 듣곤 하는 '어른' 남자들도 많다. 나이 40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 '천 번'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어른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을 골라 읽어내려간 이유이기도 하다.

책 속 '성장하라,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을 견뎌내라"는 메시지는 새내기 사회인 뿐아니라 '진짜'어른들도 되새겨볼만하다.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200만부 돌파를 앞둔 초대형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49) 서울대 교수의 신작 에세이. 전작이 대학생 등 청춘을 위한 조언이라면, 이번 책은 사회에 첫발을 디딘 25~35세 새내기 사회인들, '어른아이'에 대한 위로와 격려다. 저자는 4부로 나눠 취업·보수, 연애와 섹스, 실직, 소비와 가난, 가족 등을 화두 삼아 어루만지고 있다. '조금 먼저 어른이 된, 가끔은 아직도 어른 행세에 서투른' 저자의 멘토링은 충분히 따뜻하다.

출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독자모니터 530명에게 가제본을 보내 원고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제목에 대한 반응, 가장 많이 공감한 글이나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꼼꼼히 물어 원고에 반영하거나 덜어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회 초년생들이 힘겨워하는 문제와 딜레마들을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메세지를 전하고 격려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김 교수가 책에서 강조하는 화두는 '성장'. 몇 장 넘기지 않아도 '첫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너를 보내고'라는 소제목으로 'J에게'보낸 글을 읽다보면 명확히 나타난다. "진실로 자네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나 승진, 인정이 아니라 자네의 성장이란 말이야. 성장은 중요한 단어야"라고 조언한다. 또 "회사는 견디기 힘들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의 비전이 사라질 때 그만두는 거야"라고 적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달리느냐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언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면서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 견디자. 다 지나간다","좀 더 완성된 자신을 위해 조금씩 배우고 경험해가는, 당신은 가치 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면서 사회에 내동댕이쳐져 흔들리는 '어른 아이'를 다독이는 문체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감성적이고 진지하다.

김 교수는 앞서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에 나와서도 일, 사랑, 가족, 대인관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어른아이'가 많지만, "자신이 그리는 가장 완성된 모습"을 향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어려움에도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로 성장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한다면 보람 있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kr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를 펴낸 김난도 서울대 교수.

역사속 지도자들을 통해 현재의 리더를 모색하다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 강원택 외 지음

대통령선거를 앞둔 현 상황에서 한번쯤 곱씹어볼만하다.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이때 역사 속 지도자들의 세계관과 정치적 역정을 더듬어보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윤곽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종법 서울대 국제대학원 EU연구센터 HK연구교수 등 8명의 저자가 엮은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은 역사 속 지도자들이 치열한 고뇌를 거쳐 어떻게 위기상황을 헤쳐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뻔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리더십, 보수주의자였음에도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상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과 기득권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혼돈과 변화의 중심에 있던 영국을 이끌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유연한 리더십이 눈길을 끈다.

독일통일의 초석을 닦은 빌리브란트, 2차 대전 이후 경제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안정화시키고 유럽연합을 주도한 프랑수아 미테랑 등의 리더십도 소개하고 있다. 스웨덴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든 페르 알빈 한손과 문화대혁명 뒤 중국의 덩샤오핑이 보여준 리더십 등도 위기에 직면한 현재 한번쯤 챙겨봐야 할 듯하다.

〈북하우스·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kr

화풀이는 엉뚱한 대상에 고통 떠넘기는 것

'화풀이 본능' 데이비드 바래시 외 지음

애꿎은 시민들에게 '화풀이'성 칼부림 난동을 벌이는 등 불특정 타인을 분풀이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제목만으로도 쉽게 손길이 멈춘다.

진화생물학자인 남편 데이비드 바래시와 정신과 의사인 아내 주디스 이브 립턴이 함께 쓴 '화풀이 본능'은 폭력성과 공격성의 원인에 대한 진화론적 분석이다.

저자들은 보복·복수가 가해자를 직적 겨냥해 되갚는 것이라면 화풀이는 아무런 상관 없는, 엉뚱한 대상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화풀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책은 진화생물학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하는 한편, 신화와 문학작품을 들어 복수와 화풀이 성향도 분석한다.

저자는 특히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동물일수록 화풀이 성향이 강한데, 이는 화풀이가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 위계질서나 서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상대와의 다툼에서 밀렸을 때 느끼는 패배감과 모멸감을 씻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개체에게 분풀이를 함으로써 '나는 호구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풀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책은 '화풀이 유전자'를 잠재우는 방법으로 저자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고통 최소화 원칙'과 종교 이론, 경제학, 정신의학, 게임이론 등을 토대로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명랑한지성·1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kr

1차 대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나 여기 있으리…'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지음

현대 독일 문단의 가장 논쟁적인 작가로 꼽히는 크리스티안 크라흐트의 대표작 2편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간됐다. 소설가 배수아가 번역한 장편소설 '나 여기 있으리 햇빛 속에 그리고 그늘 속에'는 1차 대전이 끝나지 않고 96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정에서 시작된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대신 스위스소비에트공화국이 설립된다. 주인공 '나'는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요청을 받지만 그를 만난 '나'는 그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유토피아가 허상이었음을 발견하고 좌절한다.

그의 첫번째 소설인 '파저란트'는 주인공이 후기 자본주의 풍요가 넘쳐나는 이곳 저곳을 방문하는 여행 기록을 그리고 있다.

〈문학과 지성사·1만 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kr

망토만 걸친 시체… 미스터리의 시작

'스페인 곶 미스터리' 앨러리 퀸 지음

20세기를 대표하는 미스터리 거장 앨러리 퀸의 '국명 시리즈' 마지막 권인 '스페인 곶 미스터리'가 나왔다. 이 작품으로 지난해 첫권 '로마 모자 미스터리'부터 시작된 국명 시리즈는 9권으로 완결됐다.

월스트리트의 거부 고드프리가 살고 있는 북대서양 연안 스페인 곶 저택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처남이 거한에게 납치돼 사라지고, 저택에 머물고 있던 손님 한 명이 다음날 온통 벌거벗고 몸에 망토만 걸친 채 시체로 발견된 것. 오랜 친구인 매클린 판사와 마침 이곳을 여행하던 앨러리 퀸은 사건에 말려들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검은숲은 앨러리 퀸 컬렉션 가운데 '비극 시리즈' 등도 출간할 예정이다.

〈검은숲·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kr

1년, 12달, 365일, 숲을 그리다 숲과 친해지다

'열두 달 숲 관찰일기' 강은희 지음

웬만큼 부지런해서는 안될 듯 하다. '열두 달 숲 관찰일기'는 1년 12달, 365일 동안 숲의 변화를 관찰한 생태 그림 일기다.

생태작가인 강은희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북한산 정릉탐방센터의 숲을 매일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야생화 등 야생 식물들의 변화상을 생생하게 포착해내 담아내고 있다.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눠 가장 먼저 봄꽃을 피우는 개암나무와 진달래, 생강나무의 관찰 일기를 시작으로, 제비꽃, 국수나무, 당단풍나무 등 계절마다 바뀌는 야생 식물에 대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린이 벗겨지면서 잎이 막 펼쳐지려는 상태나 애벌레가 갉아 먹은 흔적이 있는 나뭇잎 등 미세한 부분까지 담아낸 130여 컷의 세밀화는 변화하는 숲의 풍경이 머릿 속에 그려지게 할 정도로 사실적이다. 작가의 꼼꼼한 관찰 기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저자는 숲을 체험하는 법, 교감하는 법, 관찰일기 쓰는 법까지 전달하면서 숲과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푹푹 찌는 무더위가 가시고 자녀들과 생태체험이나 야외학습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미리 챙겨 읽고 돌아다닐만 하다.

〈현암사·1만68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kr

신간

▲생활의 참견-운수 좋은 날=만화가 김양수씨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 중인 웹툰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최근 연재한 수백 편 중 재미있는 것만 엄선했다. 독자가 보낸 사연을 재구성해 온라인 공간에서 폭발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도 포함된 '베스트 셀렉션'. 친근한 일상 속에서 양념 같은 에피소드를 찾아내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한다. 〈예담·1만2000원〉

▲다산(정약용)의 연인 호수야! 호수야! 상·하=다산은 풍류를 아는 멋쟁이였다? 10여년간 다산의 발자취를 쫓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다산의 인간다운 흔적을 더듬어 소설로 그려냈다. 즉석에서 수십 수의 시를 읊고 남도 창까지 불러제끼는 준수한 남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가족들의 질시와 투기 속에 희망을 잃은 학자의 소외와 고독, 여인을 만나면서 느끼는 사랑, 갈등, 애정을 표현해내 사뭇 색다르게 다가온다. 〈희고희고· 각권 1만3800원〉

▲광수생각: 오늘, 나에게 감사해=박광수가 15년 만에 내놓은 카툰 에세이로, 지나온 인생의 고비에서 스스로에게 위로가 됐던 말을 따뜻한 그림과 함께 써내려갔다.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에게 오늘만큼은 자신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안아주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잠시 길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잘했어, 대견해'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북클라우드·1만5000원〉

▲따뜻한 자본주의=언론인이자 시인인 허의도 포스코경영연구소 경영자문위원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적 자본주의를 모색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성장 경로를 되짚어보고 반성하면서 인간의 이타적 동기와 환경을 강조하는 대안적 자본주의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게 저자 시각이다. 공존·공생·공감·감동·배려·통합의 의미를 지닌 인문적 코드를 자본주의에 입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리스마·1만8000원〉

▲고전으로 읽는 폭력의 기원=폭력은 비정상적인 행동일까. 인간 행동의 고유 특성일까. 또 만약 폭력이 고유한 특성이라면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호주국립대 인문학연구센터 교수인 저자 존 더커는 서양 고전을 분석해 인류 역사와 폭력의 관계를 파헤친다. 특히 집단 간의 폭력에 주목하면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 문화, 생각, 관념, 이미지 등에 자리 잡은 폭력까지 아울러 살펴본다. 〈알마·1만7500원〉

▲사랑하지 말자=도올 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가 청춘 독자에게 전하는 철학 메시지. 청춘·역사·조국·대선·사랑·음식 등을 주제로 문답 식으로 풀어나간다. 그는 '안철수 현상'과 관련, "스펙이 좋다거나, 컴퓨터 백신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든가, 또 청춘콘서트에서 말을 잘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인기나 진실이 대통령 권좌와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기현상"이라고 썼다. 〈통나무·1만5000원〉

어린이 책 꽃이

▲오천년 역사를 세운 시조임금='한눈에 펼쳐보는 전통문화 시리즈'의 하나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부터 고구려의 주몽, 백제 온조왕, 가야 김수로왕, 신라 박혁거세, 발해 대조영, 고려 왕건, 조선 이성계 등의 이야기를 다룬다. 생활 풍습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정보, 먹을 거리, 복식 문화 등 전통 문화를 총망라해 설명하면서도 정보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그림을 수록, 이해를 돕고 있다. 〈주니어RHK·8800원〉

▲목 짧은 기린 지피=동물 세계에도 '왕따'가 있을까. 목 짧은 기린 지피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 '다름'은 '틀림'이 아닌, '다르다'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면서 친구의 못난 점 대신, 장점을 찾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맹&맹·1만2000원〉

▲못 참아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겠어=한 번 잠들면 잘 깨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밤에 화장실에 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불에 오줌 싸지 않기 위해 꿈 속에서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아이의 화장실 분투기를 재미있게 담았다. 〈국민서관·1만원〉

▲왕자가 태어나던 날 궁궐 사람들은 무얼 했을까=왕자가 태어난 날이라는 흥미로운 시간을 배경으로 궁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수백년전 궁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화원들이 그리는 십장생도, 대비전의 병풍, 궁궐 곳곳의 소품 하나까지 그림으로 담아내 조선시대 화려하고 기품 있는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살림·1만800원〉

▲빨간 목도리=길을 잃었을 때 첫번째 단계이자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멈추기'에 대한 이야기다.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등 미아방지 3단계 구호만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도 가족과 생이별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길을 잃은 아이들이 침착하게 제자리에서 기다리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시공주니어·1만원〉